



기독교와 문학

수상한 관계?

이 글의 제목에서 ‘기독교’와 ‘문학’을 연결시켜주는 ‘와’는 언제나 애매모호하다. 이 접속사 하나로 수많은 양편의 주제들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짧은 글로는 도저히 모두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을 양편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양쪽이 포함하고 있는 주제들의 공통되는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문제는, 이 양편 곧 ‘문학’과 ‘기독교’의 관계가 언제나 상호간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관계를 영국 뉴카슬 대학의 T. R. Wright는 “신학이 어휘들의 의미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방향으로 신학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과 일치성, 그리고 체계적인 탐구를 하려고 하는 반면, 문학은 언어의 창조성 가능성에 대해서 자주 위협하고 전복적이며 혼동스럽고 또한 무정부적인 축제를 지향한다”고 표현했다(Wright, 1989:1). Wright가 ‘신학’에 대하여 말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이다. 어쩌면 이 역사는 성경이 하나의 문서(text)로서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들 사이에 있는 긴장과 갈등이 이런 비우호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형성되면서 그것을 하나의 텍스트(a text)로서가 아니라 유일한 텍스트(the Text, or the Bible)로서 받아들여 기를 믿음의 한 행위로서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과 긴장의 비우호적 관계는, 언어에 대한 한계의식과 언어 중에서도 특별히 문학적 언어가 지니는 기능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심화된 면이 있다. 언어에 대한 한계의식은 언어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신비주의적 체험의 강조에서 그 경향을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주장은 언어를 담은 텍스트에 의해서 그런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체험의 가능성들을 당대와 다음 세대에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 또한 문학적 언어가 지니는 기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편견이 이런 심화작용에 한 몫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런던대학의 교수였다가 얼마 전에 작고한 C. E. Gunton은, “(문학적) 메타포는 기껏해야 진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차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예술의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이성의 도구라고는 할 수 없다”(Gunton, 1988:27)는 견해가 서구사회에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면서 이런 견해를 반박한다. 그는 그런 문학적 메타포에 대한 편견의 역사를 아리스토텔레스에까지 소급한다(Gunton, 1988:28). 문학적 메타포에 대한 편견은, 문학 전반에 대한 편견으로 손쉽게 확장되어 온 셈이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에 기초한 철학(혹은 신학)이나 과학이 나름대로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존중되어 온 반면, 감정의 기능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문학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의미만을 부여해 왔던 것이다.

밀월, 그 아름다웠던 추억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갈등과 긴장의 비우호적 관계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동안 그다지 표면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에 이르기까지 '문학'과 '기

독교'의 관계는 선린적이며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하여 G. B. Tennyson과 E. E. Ericson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종교와 문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문학비평의 가장 오래된 관심인 동시에 가장 새로운 관심이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관심인 이유는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그 활동이 본래는 종교에서부터 발생하였지만, 다만 점차로 독립된 분야로 떨어져 나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가장 새로운 관심이라는 까닭은 문학이 종교뿐만 아니라 신념 혹은 어떤 교훈주의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그 결과 종교와 문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는 이 양자 사이에는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난 것은 겨우 지난 150년 동안에 야기된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Tennyson & Ericson, 1975:90;최조수, 1987:28~29)."

여기서 '지난 150년 동안'이란, 바로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사조를 통해서 그 이전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지배해 왔던 교회와 신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시기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을 말한다. '문학과 '기독교'에 대한 의문스러운 관계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이전에는 "기독교 신앙은 문학의 옷을 입고 문학의 분위기를 마시면서 자랐고(문익환, 1984:20)" "문학은 종교에서 비롯되고 종교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 받았다(최종수, 1987:29)" 이때에는 순수한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소위 근대적인 관점에서 설명되는 문학이라는 것들은 모두 종교행위와 관련되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고대 문명 사회로부터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헌들(조각문이나 묘비문들을 포함해서)이 그들 사회의 종교적 배경 하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문헌들이 1차적으로 문학적 가치를 위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었다. 히브리인들의 구약성경, 인도인들의 Bhagavad Gita, 헬라인들의 호머나 오디세이 같은 글들이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 문화가 쇠퇴하고 기독교 문명이 그 자리를 차지한 이후에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문학의 생산에 교회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다. 특별히 중세의 연극발생은, 교회의 축제와 예배행사로부터 발생되었다. 처음에는 성경의 내용에서부터 연극의 주제가 시작되었지만 곧 이어서 소위 성자들의 일생을 그 소재로 삼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단테의 '신곡'이나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와 같은 시극들이 탄생된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기간에서의 '문학'과 '기독교'의 관계는 '밀월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깨어진 거울

이런 밀월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중세교회와 신학의 지나친 지배에 대하여 반항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는 교회를 옹호하거나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있지 않던 '문학'의 생산자들이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르네상스기에 들어와서 이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작품으로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1511), 몽테뉴의 '수상록'(1588)을 들 수 있다. 에라스무스는 중세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면, 몽테뉴는 그리스-로마의 극기적 스토아주의의 회복을 옹호하면서 당시의 기독교를 은근히 비판한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1516)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1605)도 나름대로 그 당시 기독교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들이다. 이런 전통을 이어서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아예 교회와 기독교의 파괴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을 취한다. 소설 '캉디드'(1759)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학 작품들에 의해서 '문학'과 '기독교'의 관계는 상당히 부정적인 관계로 비춰지기 시작한다. '문학'과 '기독교'의 선린적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였던 거울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애당초부터 있어왔던 그 비우호적 관계가 점점 표면화되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은 그 우호적 관계가 온전히 표면화된 것은 아니었다. '문학'의 자의식이 아직은 충분히 개화하지 못했던 셈이다. 이리는 중에 이 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적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문학적 활동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밀턴의 '실낙원'(1667), 존 번연의 '천로 역정'(1675),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1719),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1726) 등이다. 이 외에도 조지 허버트(1593-1633)나 존 던(1572-1631) 같은 시인들의 작품들을 첨가할 수 있다. 이런 기독교 작가들의 작품들은 한편으로는 계몽주의적 경향을 담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허세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심화되는 분열

이렇게 계몽주의 사조에 혐오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사필귀정일지도 모른다. '이성'의 역할에 거의 절대적인 기대를 걸었던 계몽주의 사조는 결국 '감정의 역할'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문학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도 함께 불러왔다. 이렇게 계몽주의 사조 내에서부터 이전부터도 누적되어 왔던 불만들이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 낭만주의 사조다. 계몽주의자 볼테르와 함께 교체하면서 사상을 나누었던 루소의 '에밀'(1762)이나 '고백록'(1782)도 이런 낭만주의적 맥락에서 읽혀져야 한다. 낭만주의 사조의 특징은 여성적 측면의 자연과 자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계몽주의 사조 내에서 선구자

적 역할을 하였던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로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워즈워드(1770-1850)와 셸리(1792-1822), 바이런(1788-1824), 키츠(1795-1821), 콜리지(1875-1912) 등의 시인들이나 월터 스코트(1771-1832), 로버트 스티븐슨(1850-1894), 샬롯 브론테(1816-1855) 등의 소설가들, 그리고 미국의 월트 휘트만(1819-1892), 에드가 알렌 포(1809-1849)와 독일의 문호 괴테(1749-1832) 등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들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은 신앙을 감정의 형태로 인정하기를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신앙고백적인 기독교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연과 역사의 웅장함이나 괴기스러움 속에서 느껴지는 신비적 체험의 대상으로서 내면적 신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신은 인간의 자아가 무한대로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을 가진 작가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추구했던 내재적 신이나 자아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닫고 뒤늦게나마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로 귀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의 한 명이 사무엘 코올리지(Samuel Coleridge)이다. 그는 자신이 낭만주의적 사조를 추구하는 중 아편중독자가 되었다가 자신의 의지로는 그 중독에서 더 이상 헤어 나올 수 없어 절망하던 중 낭만주의자들이 찬미했던 자아가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절규한다. : "아! 나의 구세주의 공로와 고통과 십자가여! 나는 아무 것도 아니며 다만 사악한 존재일 뿐이로다. 나는 악한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도우소서,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Lefebure, 1974:479). 워즈워드와 제라드 맨리 홉킨스 (1844-1889) 같은 시인도 말년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Veith, 1990:339-40). '천국의 사냥개'라는 유명한 시를 쓴 영국의 프랜시스 톰슨(1859-1907)도 이런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옥스포드 운동'도 낭만주의 사조에 영향을 입었던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이 바로 존 헨리 뉴만(1801-1890)인데, 영국 국교도에서 가톨릭 교회로의 개종을 계기로 해서 쓰게 되는 일종의 가톨릭 변증 서라고 할 수 있는 그의 Apologia Pro Vita Sua(1865)는 가톨릭 신앙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일독할만하다. 이 당시에 '옥스포드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채 영국국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안소니 트롤로페(1815-1882)인데, 진보적인 기독교신앙의 형태를 추구하였다. 이런 일련의 낭만주의적 배경 가운데에 쓰여진 작품들 것들이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1802-1885)의 '레 미제라블'(1862), 미국의 나다니엘 호손(1804-1864)의 '주홍글씨'(1850), 허만 멜빌(1819-1891)의 '백경'(1851), 마크 트웨인(1835-1910)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1884) 같은 소설들이다. 또한 올리버 골드스미스(1727-1774)의 '웨이크필드의 목사'(1766)는 초기 낭만주의 사조를 배경으로 하는 기독교 소설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중심이 사라진 세상

인간의 자아와 자연에 대한 낭만주의적 강조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다. 낭만주의에서는 비록 그것을 자아와 자연속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흐릿하게나마 신에 대한 잔념들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이다. 니체, 후설, 하이데거 등의 실존주의철학에 영향을 받은 알베르트 까뮈(1913-1960)의 '이방인'(1942)과 '페스트'(1947), 사르트르

(1905-1980)의 '구토'(1938)와 같은 소설들이 발표 되었다. 이들의 기본 주제는 신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모순되며 허무하다는 것이다. 헤르만 헛세(1877-1962), 앙드레 지드(1869-1951)와 앙드레 말로(1901-1976), 생 뵉쥐베리(1900-1944) 등의 유럽식의 실존주의와는 약간 달리 미국식의 실존주의는 행동적이고 말초적이지만 그 본질은 비슷한 것 같다. 마가렛 미첼(1900-1949), E. 헤밍웨이(1899-1961), F. 피츠제럴드(1896-1940), J. 셸러(1919-2010), 윌리엄 포크너(1897-1962), 존 스타인벡(1902-1968) 등이 나름대로 희망을 제시하려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과 진실한 삶, 그리고 그 유머의 뒤에는 무언가 영혼을 오히려 더욱 근지럽게 하는 허전함과 고독함이 진하게 느껴진다. 이런 느낌들은 그들의 뒤를 잇는 현대작가들, 소위 포스터 모더니스트작가들로 알려져 있는 밀란 쿤데라(1929년~현재), 가브리엘 마르케스(1928~현재), 혹은 움베르트 에코(1935~현재),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 등의 소설에서도 여전히 느껴진다. 영혼의 어떤 부분의 가려움을 긁어주는기는 하지만, 딱히 그곳이라고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근지러움으로 영혼의 근지러움이 더욱 근지러워지게 되는 것 같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의 초두에서 말하였던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 하는 억지인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만족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서 부르짖는 아우성처럼 들린다. 이렇게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짜 금에 실망해서, 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현대소설들을 읽으면서, Charles Moeller는 절망과 허무의 탄식소리를 듣는다. : "모든 방면에서 이 고리는 잡혔다. 즉 인간의 연약성이 고쳐질 수도 없

고 이기주의가 뽑힐 수도 없다. 세계의 죽음은 부정할 수도 없다. 현대의 우리의 모든 노력은 환영으로 돌아간다(Moeller, 1987:430)." 그러면서 이러한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증거라면서 그 희망을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걸어 본다. 이 희망은 절망의 늪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막연하고 모호한 낭만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한 부조리와 무의미의 깊은 심연을 거쳐서 갖게 되는 소망이다: "기독교의 기원은 여기에 있다. 즉 죽음과 고난의 위협이 오를 때에 깊이 가슴 안에 저쪽의 걱정이 기입할 때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그림자의 왕국, 희망이 줄어들고 적게 되며 막이 뭉쳐지는 대신 부조리의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점점 커질 때에 <다른> 세계로 추운 듯이 피난하고 이 사람들을 가루로 날려 보내면서 점차로 그는 성장하고 충만하며 화신한다(Moeller, 1987:436)." 다행스럽게도, 이런 절망과 허무의 탄식을 거쳐서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여 그 체험들을 문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G. K. 체스터턴(1874-1936), T. S. 엘리엇(1888-1965), 도로시 세이어즈(1893-1957), C.S. 루이스(1898-1963)와 그레엄 그린(1904-1991) 같은 인물들이 그러하다. 윌리엄 골딩(1911-1993)은 특정한 기독교 종파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진지한 종교적인 인물로 인정하고 있었고, '파리 대왕'같은 기독교적 주제를 담은 소설을 쓰기도 했다. 더욱 최근에도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Veith, 1990"384-88).

지금까지 '문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그 역사적 전개과정의 측면에서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계몽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던주의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그 관계의 양상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다. 소위 '기독교 문학'은 현대 문학의 주류의 뒤편길에서 기독교하부문화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겪고 있는 아픔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양상이 스크린이란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양산되는 가운데 문학의 기능은 더욱 축소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

나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음란한 대중문학들이 고전이 들어서야 할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문학을 즐기기에 쉽지 않은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문학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조가 몰려 오는 중에도 그 사조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그 사조의 경향들을 통해서 기독교적 정신을 구현해 온 작가들이 언제나 있어왔다. 이들은 자기들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아들들이면서도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도 언제나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살았고 그 복음의 어떤 국면들을 자신들의 역량으로 문학의 고유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은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이들의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학 그 자체는 결코 기독교와 대립된 것도 아니요, 비우호적인 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문학의 기능들을 적극 활용해서, 기독교신학과 신앙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신앙의 함양을 위해서도 큰 유익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현실을 모방하거나 그 현실을 소재로 하여 문학적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사실주의 문학은 모방적인 것이고, 공상문학은 창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문학형태가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Veith가 말하는 것처럼, 공상문학은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대단히 사실적일 수 있고, 사실주의 문학도 극도로 나가면 공상적인 면이 포함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간단히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자하는 것은, 문학의 소비자로서의 독자들이 문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문학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고전들로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은 고전들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계해서 유해한 부분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 "고전은 우리가 이미 범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 우리가 우쭐해지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그리고 고전 자체의 잘못은 이젠 명백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한 것이 아니다(Veith, 1990:276)." 과거의 책들을 보게 되면 독자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점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교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루이스는 최근의 책들을 세 권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고전을 적어도 한 권씩은 읽으라고 권한다.

이러한 독서를 통해서, 독자들은 문학적 현실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책의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되기도 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첩경이기도 하다(칼빈, 2003:41-43). 이러한 자각(自覺)은, 무엇보다도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이고, 그들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비기독교인들이 생산한 문학작품들 속에서도 얻을 수 있다. 인간타락의 공포스러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조셉 콘라드(1857-1924)가 그의 작품 ‘암흑의 오지’ (Heart of the Darkness, 1899)에서 주인공 커르츠로 말미암아 “무서워라, 무서워라” (horror, horror) 단 두 마디 말을 토해놓게 함으로 결론짓고 있는 것은, 문학사에 있어서 작품 중 주인공들이 남기는 유언들 중에서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자기 발견이나 자각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의식을 더욱 고

양시키거나 사고를 촉진하고 확장시킴으로 인하여 자아의 성숙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문학의 기능을 자아의 탈각(脫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여, ‘성화’ 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서 독서는 성경을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비기독교서적이거나 반기독교서적조차도 이런 탈각의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들만의 문화 속에 빠져있을 때,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이런 비기독교적 문학들은 기독교인들이 그 계도문화로부터 깨어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속문학에 대한 기독교문학의 영향력의 확대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 바로 이점이 개혁주의신학과 신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헨리 반틸은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상호간 구별해야 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는다(Van Til, 1972:47). 이것을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라이켄은 “그리스도인들은 문학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며,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문학은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이 아니다. 그렇지만 문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전파되어야 할 인간적 정황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면서, “문학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지는 않지만,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여정을 아름답고, 즐거우며, 통찰력이 넘치고, 인간적일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적절하게 표현한다(Kyken, 1991:32-33).

이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나타난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 중에서 문학적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사명을 성취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명 성취를 고무하는데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다음 문장은 참으로 적절하다: “칼빈주의는 예술을 성령의 선물로, 또 우리들의 현세생활의 위안물로 생각하며, 또 예술을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인생의 내부에서, 보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배경으로 간주한다. 칼빈주의자에게 있어서 예술은 지고한 예술가이며 최고의 건설자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그 본래적 창조의 미를 다시금 새롭고 고상하게 만드실 그 찬란한 회복의 대업을 미리 인간들에게 암시하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최종수, 1997:20).”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술 중의 하나인 문학을 통하여,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문학’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고 또한 ‘기독교’가 ‘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인정해주면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독교’와 ‘문학’-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참고문헌

- 문익환. 1987. “신학과 문학의 만남”, 「현대문학과 기독교」, 김주연 편, 서울:문학과 지성사.
- 최종수. 1987. 「문학과 종교의 대화」. 서울:성광문화사.
- 칼빈 요한, 2003 「기독교 강요 : 상」. 고양:크리스찬다이제스트.
- Gunton, C.E. 1988. the Actuality of Atonement. Edinburgh: T&T Clork.
- Lefebure, Molly. 1974. Samuel Taylor Coleridge. Stein & Day.
- Moeller, Charles 1987. 「문학과 종교 Ⅲ」, 이효상 역, 대구:이문출판사.
- Ryken, Leand. 1991. 「기독교와 문학」. 권연경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Tennyson, G.B.& Ericson, E.E. 1975. Religion and Modern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 Van Til, H. R. 1972. 「칼빈주의 문화관」. 이근삼 역. 서울:영음사.
- Veith, G. E. 1994. 「그리스도인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나침반사.
- Wright, T.R. 1989. Theology and Literature. Oxford:Basil Blackwell.